

코로나19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유예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잇따른 코로나 백신 개발의 성공 소식에
전세계가 희망에 찬 것 같다.

그러나 이 소식이 과연 **"모두"**에게
희망적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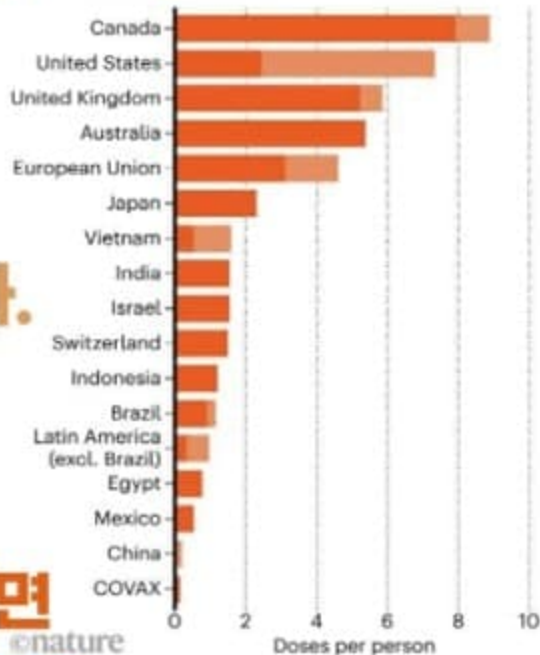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과도한 양의 백신을
사전 구매했다.
그들에겐 희망적인 것이다.

BEST AND WORST SUPPLIED

Canada has pre-ordered almost 9 doses of COVID-19 vaccines per person.

■ Pre-ordered ■ Potential for expansion in deal



그러나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중저소득국가와 최빈개도국은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프 출처: Nature 2020.11.30일자. "How COVID vaccines are being divvied up around the world"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이런 상황에서도 글로벌 제약사들과 그들의
본사를 둔 선진국들은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 제넥신: COVAX에 조달 가능성, 셀트리온: MPP와 계약

출처: <https://medicinespatentpool.org/news-publications-post/covid-19-generic-pledge-press-release/>

* COVAX: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국제 연합체

* MPP(The Medicines Patent Pool): 의약품특허풀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코로나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로서
 전세계적으로 공평하고 저렴한 가격에
 배분되기 위해서는 **TRIPS 협정의 특정조항,**

**즉 지적재산 보호를 유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조항은 고소득국가와 제약산업계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조항이기도 하다.

*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허권, 디자인 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 WTO협정 부속서 1C로 발효된 동 협정은 총 7개장에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위키피디아)

* TRIPS 협정의 특정 조항: 저작권(제2부 제1절), 산업디자인(제2부 제4절), 특허(제2부 제5절) 및 미공개 정보
 의 보호(제2부 제7절)와 관련된 조항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10월, 인도와 남아공은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 실현을 위해 **TRIPS 유예**를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한국정부가 집행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도 인도와 남아공의 TRIPS 유예안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남아공의 TRIPS 유예안은 WTO 고소득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사진 출처: <https://msfaccess.org/nocovidmonopolies-twitter-storm-activist-toolkit>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1
2
3
그들이 반대하는 주장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나?



**주장 1: 지적재산권은 혁신과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



정답: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수출국/수입국 모두 지적재산권의
장벽이 없어야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례로, 네덜란드는 로슈가 진단 시약의
버퍼와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거부하여
진단 검사를 확대할 수 없었다.



**주장 2: 제약사들은 중저소득국 국가의 생산을
위해 자발적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 이는 이미 경험적으로
틀린 것이 입증되었다.**

길리어드사는 남미 국가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의 자발적 라이선싱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이는 곧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가격과 시장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주장 3: TRIPS 유연성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다?



정답: 이번 사태에서는 불충분하다.

코로나 같이 적시에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TRIPS 유연성 조항만으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행정, 소송 등)가 증가한다.

또한 TRIPS 유연성 조항을 시행한 국가는
국제무역과 외교적 차원에서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주장 4: 혁신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가 없다면, 제약사는 혁신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정답: 그들이 주장하는 "혁신"은 공공 재정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공"은 주체로써 혁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이 혁신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방해했다고 시사한다. 또한 공공 재정을 지원받은 제약사는 혁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5년간의 TRIPS 체제는

실패했다!

한국 정부는

인도-남아공의 TRIPS 유예안에 찬성함으로써,
그간 공언한 '인류를 위한 공공재'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